



우크라이나와 전후 복구 협력 논의

전북자치도, 우크라 고위 대표단과 공식 환담... 양국 간 경제·산업·문화 협력 가능성 타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8일 우크라이나 고위 대표단과 공식 환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 산업, 문화 분야의 교류 확대와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사진 3면>
이번 환담은 (사)한국우크라이나뉴빌딩협회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유엔코대통령 재단 이리나 침발(Iryna Tsybalyk) 이사장, 비니차 주 빅토리아 파르체브스카(Viktoriya Parchevska) 국제협력 부자유치 지역개발 수석 전문가, 비니차 주 빅토리아 안드리 카부네츠(Andrii Kavunets) 부지사, 우크라이나 상공회의소 발레렐 코롤(Valeriy Korol) 부회장 등 지방정부, 상공회의소, 민간기업, 대학, NGO 대표 등 정부·경제계 주요 인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경제사절단은 지난 24일부터 인천을 시작으로 울산, 부산, 경남 등을 순회하며 경제협력 포럼과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이어왔다. 전북 방문은 대한민국 주요 지방정부와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일환이다.

이날 환담에서는 전북이 강점을 가진 농생명산업,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문화관광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유엔코대통령 재단 이리나 침발 이사장은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지정학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추구하는 전국의 산업 전력이 전후 우크라이나의 국가 재건 방향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북의 농생명·재생에너지·첨단산업 기술력에 깊은 관심이 있으며, 적극적인 교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표단은 전북의 산업전력과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포괄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북의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기술은 전후 우크라이나의 국가 재건 방향과 맞닿아 있어 양측 모두 큰 관심을 보였다. 사절단은 전북의 산업 전력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모델이라며 호평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향후 상호방문 확대, 공동 포



개화 시작한 선운사 동백꽃

고창군이 천연기념물 184호인 선운사동백나무숲의 동백꽃 개화가 시작됐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현재 개화율은 10%가량이며, 4월 초 만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고창군청 제공)

럼 개최, 전북기업의 우크라이나 진출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북자치도 또한 우크라이나 지방정부와의 자매결연 및 경제협력 MOU 체결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국제개발협력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기업·학계·NGO 간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산업과 인도적 지원 분야 모두에서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경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농업기술, 문화콘텐츠 등에서 전북의 기술과 경험이 우크라이나 현지 수요와 결합될 경우, 국제사회 내에서의 위상 제고와 함께 전북 기업의 수출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재건과 평화 정착에 기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참여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는 "전북은 대한민국의 산업 대전환을 선도하고 있으며, 미래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전쟁 이후 국가 재건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 전북이 진정한 협력 파트너로서 함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국이 서로의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천연기념물 독수리, 다시 창공으로

김제시 일원서 구조·치료 후 진봉면 심포항에 방사
도·야생동물구조센터, 생태계 복원 일환으로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8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43-1호인 독수리 두마리를 김제시 진봉면 심포항 인근에 성공적으로 자연 방사했다. 이번 방사는 야생동물 보호 및 생태계 복원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독수리는 매년 몽골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대표적인 겨울 철새로, 자연 생태계에서 사체를 먹는 청소부 역할을 수행하지만, 농약 중독 등의 이유로 구조되는 사례가 많다.

이번에 자연으로 돌아간 독수리는 지난달과 이달 김제시 일원에서 낚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잇따라 발견돼 긴급 구조됐다.

전북야생동물구조센터는 신체검사 및 방사선 검사 등을 실시해 출혈성 장염과 농약 중독이 원인임을 확인하고 집중 치료와 재활을 진행했다. 그 결과 독수리는 자연 복구가 가능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고, 방사를 위한 최종 점검을 거쳐 김제 심포항에서 자연으로 돌아갔다.

전북자치도는 야생동물 보호와



지난 28일 김제시 심포항 인근에 자연 방사된 독수리.

생태계 보전을 위해 전북야생동물구조센터와 협약을 맺고, 지난해에만 희귀종을 포함한 총 1,279마리의 야생동물을 구조·치료했다. 회복된 개체들은 자연으로 돌려보내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순옥 전북자치도 탄소중립정책과장은 "이번 독수리 방사는 단순한 구조·치료가 아닌,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생태계 보전과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군산~제주 노선 항공편 확대

5월 17일부터 '하루 3회'로... 도민 항공교통 불편 해소

전북자치도는 5월 17일부터 군산~제주 노선 항공편을 하루 3회로 확대 운항한다고 밝혔다. 이번 증편은 국토교통부의 2025년 하절기 국내 항공운송사업계획 인가에 따라 확정됐으며, 도민의 항공교통 편의를 높이고 군산공항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군산공항 운항 일정은 지난해 10월부터 하루 2차례 운항되고 있다. 그간 불편 문제로 인해 도민 불편이 지속되어 왔고, 겨울철 강설로 인한 결항률도 높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군산~제주 노선의 안정적 운영을 요청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전여객기 하루 3회 노선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군산공항은 기존보다 활기를 띠게 된다.

특히 5월 17일부터는 새로운 시간대(군산→제주 오후 3시 30분, 제주→군산 오후 1시 55분)가 추가되면서 이용객의 선택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

도는 항공기 결항 문제 개선을 위해 동절기 강설 대비 제·방빙시설도 도입했다. 도는 향후에도 제설 장비 보강, 제·방빙시설 운영 확대 등 강설 대응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군산공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 중이다. 최근 공항 내 안전점검 결과 로컬라이저 기초 구조, 방위각시설 등 안전요소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만호 기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고창



고창읍성